

푸르고,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1980년 5월을 일기에 적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오월일기』, 2021

권도균(Kwon, Do Gyun)*

혹시 내가 쓰는 이 글이 1980년 5월의 상황을 잘못 전달하거나, 혹은 민주영령과 희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또다른 아픔이 되거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또한 이 글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의 대상이 되거나 증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걱정과 조심스러움을 감내하고서라도 현재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큰 전기가 된 5월항쟁의 그 진실을 알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글 솜씨와 빈약한 감상을 남긴다.

이 책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흔히 말하는 스키마가 필요하다. 5·18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경험 이런 부분은 2022년 현재 시점으로, 예전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라 떼는’으로 부르면서 끈대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옛날사람’이 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 박사과정 수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약간의 자부심과 국뽕을 섞었다는 위험이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다원적인 민주주의 의식과, 현실적인 사회 시스템과 정부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주주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혹은 평을 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인 것을 알지만, 최근의 이런 저런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세계 최고라 자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가까운 예로 국민이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한 4년짜리나 5년짜리 임기제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거리에 나가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외칠 것이다. 최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안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리에 뛰쳐나간 사람을 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뉴스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민주 의식 발전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온 수많은 시민들의 피, 땀, 눈물, 고통과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 노력한 인고의 세월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긴 대표적인 사건 몇 개가 있다.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02년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시위이다. 그중 가장 짧은 시간동안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5·18민주화운동이다.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시민의 피로 그 체계를 다져온 시간과 노력, 의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이는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는 나라, 군사독재의 망령이 살아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따라 배우려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1980년 이후에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들이, 202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미얀마에서 더더욱 5·18민주화운동을 따라 배울 사례로 보고, 자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간략하게 내가 아는 5·18민주화운동을 서술한다. 5·18민중항쟁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18년간 권좌를 지킨 박정희 대통령의 1979년 시해사건 이후, 정치적 공백기에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일부 반란군 수뇌부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광주와 전남도민을 피의 제물로 삼아 일어난 사건이다. 반란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군대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임의로 이동시켜 국민을 총칼로 잔인하게 살해·폭행하였다. 이 처참한 만행에 맞서 저항한 광주·전남의 시도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10여 일간의 사건이다. 하지만, 그중 중요하고 확실한 책임의 실체와 민간인의 정확한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미해결된 과제를 42년 동안 안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의 2022년 현재 상황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있는 지, 42주년인 2022년 올해는 전직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지역방문으로 광주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역에서 5월 민주영령과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했다. 민주영령에 대한 경의와 명복을 빌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말했다.¹⁾ 가해자였던 쪽과 가장 가까운, 혹은 직접적인 후신인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5월을 상징하는 전 세계적인 노래인 ‘님

을 위한 행진곡²⁾을 제창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³⁾가 이전까지 극우보수진영이 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폄훼와 지역 차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정권 이전부터 몇 년째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언제 수록되고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을 조사하고, 실체를 규명하려고 2019년부터 조사활동중이다. 1980년 5·18 당시 있었던 민간인 사살, 암매장, 성폭행, 성추행,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최종 발표명령권자, 책임자, 진상왜곡 등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진상을 조사중이다.

5월 일기가 포함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다

2011년 5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이 선수로 활약한 팀이 있는 것으로 더 유명한 잉글랜드 맨체스터 지역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권기록물로 등재가 되었다. 선정이유는 1980년 광주항쟁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성장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인 로슬린 러셀 박사는 5·18기록물이 가지는 가치와 기록유산 등재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
- 1) 2022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기념사
 - 2) 한글의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법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맞지만, 1982년 만들어진 최초의 악보원곡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표시되어 있어, 필자는 '님'으로 표기한다.
 - 3)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말한다.

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죽음을 조사하고, 묘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설명하며, 극도의 역경과 박해를 넘어선 인간승리에 대한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인류의 양심과 기억의 일부분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록물은 9가지 부분으로 당시 취재기자들의 사진, 취재수첩, 시민이 직접 만든 유인물, 성명서, 일기,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문서, 피해자 구술증언, 병원치료기록, 관련 재판기록, 국회조사위원회회의록, 피해자보상자료, 미국의 5·18관련자료문서 등이 해당한다.⁴⁾ 이 시민 생산 기록물에 직접 작성한 일기 4권이 선정되었다.

「오월일기」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다. 2021년 12월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18기록관)에서 발간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자료총서 1권이다. (책 속에는 2021년 11월에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과 구성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4편의 일기와 이후 5·18기록관에서 기증받고, 수집한 일기를 포함하여 16편에 대한 소개와 설명, 해제이다. 일기의 내용은 항쟁에 직접 참여한 이들이 보고 듣고 겪은 내용, 혹은 목격자로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가족과 지인들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이야기와 그에 대한 느낌이다.⁵⁾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 책에 소개된 일기들의 종이 원본과 디지털화된 파일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다. 5·18의 미해결된 진상규명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나 내용은 일기 안에서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진상규명 문제 해결에

4) 더 자세한 것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www.518archives.go.kr)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참고적으로 당시 취재기자들의 취재내용을 다룬 취재수첩도 있다. 2021년에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자료총서 2권 「오월일기」와 「오월 취재수첩」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대한 아쉬움도 있다. 원래 일기가 그런 것인데 어찌겠는가, 혹시라도 반란군 수뇌부의 누군가 개인적인 일기를 남겨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 혹은 수뇌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이들 중 자신의 기록을 남겨놓은 이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몇 년간 했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pp. 71~73)

일기가 가지는 중요한 부분인 개인적인 느낌과 시각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 항쟁에 참여한 이들 중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취사반에서 일했던 여고 3학년생인 주소연의 일기에는 당시 도청의 분위기,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 슬픔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 중 일부만 인용한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공수부대)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 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군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 시민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 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잠깐 사이 모금함에 85만 5천원이 걷어진 사실을 아는가? 외곽지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만행을 아는가. 광주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몬 정부를 인정하는가. 이 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pp. 71~73)

개인의 감상과 기록이 전체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한다

기증된 일기의 전체 내용 중 80년 5월의 시위나 항쟁에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데 시위나 항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성

언론(TV, 라디오)에서 본 내용을 듣기만 한 이들의 시각과 직접 참여한 이들, 근거리에서 목격한 이들의 시각과 관점, 사용하는 언어들은 확실히 갈리는 느낌이다. 일기에서 보이거나 서술된 분위기 시각들은 기록으로서 1980년 5월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고 이야기로서 시작-중간-같은 서사성이나 완결성이 없고 단편적인 상황이 나열된다. 또 글을 쓴 사람의 생각, 감정들이 정제되지 않고 서술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면이 단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술한 이들이 보는 개인적인 시각, 그 개인적인 느낌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공공기록의 영역이 보여줄 수 없는 개인기록의 가치다. 이 책은 일기 서술자들이 하는 5·18민중항쟁이라는 단일한 주제를 다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쓰인 내용 중 5월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 하나 하나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이라서, 한 두 개로 축약하거나 대략적인 소개가 어렵다.

개인(私)적인 기록은 공식적이거나 공공기록보다는 증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 각자의 시각에서 보고, 경험한 것은 당시 상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최근에는 사적(私的)기록물을 공적영역에서 생산한 기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록을 더 공부하고자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 보고 추천한다. 『오월일기』는 5·18민주화운동기록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5월 민중항쟁을 바라보았는지, 그 느낌이 어땠는지 하나의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을 실제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바라본 시각을 기록으로서 훌륭하게 접근한 책이라 본다. 흔히 말하는 1차사료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⁶⁾ 물론 집필자의 생각으로 편집하고 설명하

고 의견을 표명 했다는 것을 포함해서다. 아쉬운 점은 이 책이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발행하여 서점에서 살 수 없는 책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연락해서 얻거나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www.518archives.go.kr)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에 시민생산 기록에 기증받은 일기가 원본 스캔본과 정리된 내용이 올라와 있다.